

2015년도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3차 심의 총평

- 일시 : 2015. 7. 21(화) 10:00~17: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윤섭, 심상용, 정종효, 최병식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공모사업 시각예술분야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3차 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 기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 부스 참가’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본 사업에 대한 신청은 ‘기획 프로그램’에 11건, ‘부스 참가’에 13건 등 총 24건이었으며, 그 중 심의를 통해 총 15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심의회의에서는 우선 지원신청서에 명기된 신청자(단체)들이 참가하려는 아트페어의 규모와 수행 장소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상호 비교하여 심의하였다. 또한 국제 아트페어 지원 사업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단체와 작가, 기획자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국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서류심사와 병행하여 ‘기획 프로그램’ 신청에 한해서는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당 사업 기간에서 벗어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면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세부 심의평

국내·외 아트페어 기획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는 해외 미술시장 개척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사업 신청자(단체)가 사업을 실행할 만한 전문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원금 지출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획 프로그램의 독창성이나 참신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시각예술 분야 중 순수미술 중심의 시장 개척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아트페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미술시장 사업인 만큼 비영리 단체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사업의 지원 목적은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통해 한국 미술과 한국 작가를 효과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참신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술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과 사업 결과(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한 내용이 제안서 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아트페어 부스 지원의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아트페어의 규모와 세계 미술 시장에서의 위치, 신청자(단체)의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였다.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자들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 지원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 작가 선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시장 개척에서 기획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사업 진행과 더불어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더불어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갤러리가 작가에게 부스 참가비나 작품 대납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선정된 단체들이 해외에서 한국미술의 위상과 역량을 알리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심의위원 일동